

w계 이중모음의 변화와 관련된 영남방언의 특성과 그 전개*

오 중 갑**

I. 서 론

1) 방언의 차이가 음운규칙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면, 국어의 각 방언간에 나타난 w계 이중모음 체계의 차이도 통시적으로 발달해 온 음운규칙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주로 각 지역어의 w계 이중모음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w계 이중모음들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음운규칙의 적용으로 현재와 같은 체계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방언 상호간의 비교, 대조에 의한 연구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수수관계를 거의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언 상호간의 비교, 대조에 의한 연구가 부진한 것은 방언 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방언자료집》을 완간함에 따라 각 지역 방언의 어휘, 음운, 형태 등의 연구는 물론이고, 이들의 비교를 통해 각 방언의 특성을 밝힐 수 있으며, 전국적인 언어지도의 작성을 통해 방언 상호간의 수수 관계를 밝히는 일이 가능해졌다.¹⁾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방언자료집》에 나타난 자료들을 활용하여 전국언어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w계 이중모음의 변화에 대한 전국적 양상을 파악하고, 그 양상 속에서 영남방언이 차지하는 위치를 밝혀 보고자 한다. 특히, w계 이중모음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3 년간의 과제로 연구 중인 ‘영남방언의 음운론적 특성과 그 전개’의 중간 보고서임.”

** 영남대학교 교수

1) 《한국방언자료집》 이외에도 전국적인 방언자료집으로는 소창진평(1944), 김형규(1974), 최학근(1990) 등을 들 수 있다.

의 변화와 관련된 음운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들이 영남방언에서 발생한 규칙 인지의 여부를 밝혀 보고자 한다. 만약 그것이 영남방언에서 발생한 규칙일 때는 그것은 그대로 영남방언의 특징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디서 전파되어 왔는지 해명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밝혀지면, 영남의 각 지역(군 단위)에서 w계 이중모음의 변화가 어느 정도로 진척되고 있는지와, 만약 진척 정도에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차이가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까지도 밝혀봄으로써 영남방언 내부에서의 w계 이중모음 변화의 전개 양상도 밝혀 보고자 한다.

2) w계 이중모음의 변화와 관련하여 영남지방 전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업적은 발견되지 않으나, 하위 지역어들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에서는 w계 이중모음의 체계를 제시하고, 그들이 중앙어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언급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먼저 경북방언과 관련된 논문들에 나타난 각 지역어들의 w계 이중모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민원식(1982:26)과 이시진(1986:19~21)은 각각 문경 지역어의 w계 이중모음에 wi, wɛ, wə, wa와 wi, wɛ, wɜ, wa가 있으나, 자음이 선행할 때는 w가 삭제되어 단모음으로 실현된다고 한다.

이동화(1984b:9)는 안동지역어의 w계 이중모음으로 wi, wɛ, wə, wa가 실현되고, 서보월(1984:23)과 조신애(1985:11~12)는 wi, wɛ, wə, wa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자음이 선행되지 않을 때만 실현된다고 한다. 그리고, 최임식(1994:245~249)은 안동 용천지역어에서 자음이 선행되지 않을 때 wi, wɛ, wə, wa가 실현된다고 한다.

백두현(1985:89)은 상주 화북지역어에서 wa, wə, wɛ, we, wi가 실현됨을 보고하였다.

정철(1991:36)은 의성의 서부 지역어에서 w계 이중모음으로 wi, wɛ, wə, wa가 실현된다고 하며, 신승원(1997:40)은 의성지역어에서 wi, wɛ, wə, wa가 실현된다고 한다.

최명옥(1980:157~158)은 경북 영덕군 영해면의 괴시동과 대진동의 지역어에서 세대별 차이가 약간 있기는 하나 자음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wi, wɛ, wɜ, wa가 실현되고, 자음이 선행될 때는 w가 삭제되어 i, ɛ, ɜ, a만 남는다고 한다.

백두현(1982:11)은 금릉 지역어에서 자음이 선행되지 않을 때 wi, wɛ, wɜ, wa가 실

현된다고 한다.

이동화(1984a:3~4)는 고령지역어에서 어두에 k나 h가 오는 제한된 환경에서만 wi, we, wa, wa가 실현된다고 한다.

권재선(1981)은 청도방언의 w계 이중모음에 wi, wE, wə, wa가 있다고 한다.

최명옥(1982:23, 80~85)은 월성지역어의 w계 이중모음 체계의 변화를 3기로 나누어, 제1기: wə, wa, 제2기: wi, we, wE, wə, wa, 제3기: wi, wE, wɜ, wa로 구분하고, 제2기에서 제3기로의 변화를 w삭제에 의한 변화(wi, we, wE, wa>i, e, ɛ, a)와 축약에 의한 변화(wə>o)의 둘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일부 어사들에서는 이 두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에서는 경남방언과 관련된 논문들에 나타난 학자들의 견해를 보기로 한다.

김영송(1974)은 경남방언 전체로 볼 때는 w계 이중모음에 ‘와, (위), (왜), (위)’가 있으나 w는 어두 이외의 위치에서는 매우 불안정하다고 한다. 그리고, 경남을 동북지방(울주, 양산, 동래, 밀양, 창녕, 함천, 그리고 의령, 함안, 창원, 김해 등의 일부)과 서남지방(함양, 산청, 하동, 사천, 남해, 고성, 통영, 거제, 밀양)으로 나누어, 전자에서는 ‘왜’가 있으나 후자에서는 그것이 없고, 또 전자에서는 ‘위’의 w음이 우세하나, 후자에서는 그것이 열세하다고 한다. 그러나, 김택구(1991:42)는 경남 전역에서 wɜ, wa만을 인정하며, 박정수(1993:17)는 wa만을 인정한다.

김재문(1977:20~21)은 서부경남(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해, 사천, 고성, 진양, 함천) 방언에서 wə와 wa는 선행자음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실현되나 그것이 있을 경우에는 w가 삭제되며,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선행자음이 없을 경우에도 임의적으로 w가 삭제된다고 한다. 그리고, wE, we, wi의 w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실현되지 않는다고 한다.

박명순(1982:16)은 거창지역어의 w계 이중모음에 wi, wE, wə/wɜ, wa 등이 있으나 자음 뒤에서는 w가 삭제된다고 한다. 그러나, 한자어에서는 wɜ가 그대로 실현된다고 한다.

성인출(1984:7~10)은 창녕지역어의 w계 이중모음에 wə, wa가 있으며, 표준어의 ɔ에 해당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oy>we>e>i(ɛ)로 바뀌고, 표준어의 ü에 해당되는 것은 uy>wi>i 혹은 uy>u로 바뀐 것으로 해석하여 이른 시기에는 이 지역에서 we와 wi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정영주(1987:451~461)는 창녕지역어의 w계 이중모음이 wE>ɛ(e), wa>a, wə>ə(o), we>e(i) 등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문곤섭(1980:34)은 창녕지역어에서 자음이 선행되지 않는 경우에만 wi, wE, wɔ, wa 등이 실현된다고 한다.

전광현(1979:17~19)은 함양지역어에서 어두의 비자음음절에 한하여 wa, wə, wɛ가 실현되는데, wɛ는 [wɛ], [ʷɛ], [ɛ]의 변이음을 가진다고 한다.

배병인(1983:54)은 산청지역어의 w계 이중모음에는 wa만 있다고 한다.

이영길(1976:34~36)은 진주, 진양 지역에서 w계 이중모음이 wi>u(i), we>e, we>ɛ, wa>a 등으로 변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광호(1978:177)는 진주지역어에서 wi, wə, wa는 자음이 선행되면 w가 삭제되어 i, ə, a로 실현되며, we와 wɛ는 w가 삭제된 다음 e와 ɛ의 합류형 E로 실현된다고 한다. 그리고, 자음이 선행되지 않을 때는 온전히 w가 실현되는 어사도 있고, 임의적으로 w가 실현되는 어사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곽창석(1986:7)은 진주지역어에서 wa, wɔ만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영주(1985:293~296)는 진양군 정촌면의 지역어에서 wə, wɛ, wa가 각각 ə(o), ɛ, a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김영송(1973:104)은 김해방언에서는 서울방언의 wi, wɛ, wə가 각각 i, ɛ, ə 등의 단모음으로 바뀌었으므로 wa만이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박지홍(1975:184)은 양산방언에서는 wa만 실현된다고 한다.

정연찬(1968:64)은 고성, 통영 부근 지역어에서 w와 다른 모음이 결합될 때 we, wɛ, wə, wa 등이 실현되나 어사에 따라 w가 매우 약화된다고 한다.

박창원(1983:78~79)은 고성지역어의 w계 이중모음체계에 wə, wa가 있는데, 이들은 wi, wə, wa>wi, (wɛ), wə, wa>wi, we, wɛ, wə, wa>(we), (wɛ), wə, wa>wə, wa의 과정을 거쳐 발달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중호(1984:22~23, 26)는 고성지역어에서 자음이 선행되지 않을 때는 we, wɛ, wə, wa 등이 실현되는데, 앞의 둘에서는 w가 임의적으로 삭제된다고 본다.

유구상(1975:55~56)은 남해도 방언에서 we, wɛ, wa가 환경에 관계없이 e, ɛ, a로 바뀐다고 하는 데 비해, 김형주(1983:47)와 류영남(1982:10)은 wa가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정덕(1982:4)은 거제지역어에서는 w가 음소로 설정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w계 이중모음은 거의 다 단모음화하였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영남 각 지역어의 w계 이중모음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주로 각 지역어들에서 w계 이중모음으로 어떤 것들이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영남방언이 다른 방언과 어떻게 다른지, 이를테면, w계 이중모음의 변화를 가져 온 개실파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전원지는 어디이며, 또 그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전파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대체로 보아 경남지역에서 w-삭제규칙의 적용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으나 조사자, 조사지점, 조사 시기, 조사 어휘 등등 서로 다른 상황에서 얻어진 결론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동일선상에서 종합하여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기에는 주저되는 점이 없지 않다.

II. 변화의 실제

《한국방언자료집》의 「음운편」에는 각 방언의 모음체계를 규명하기 위해 그 방언형을 대비하여 조사한 자료들이 실려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자료들 가운데 w계 이중모음의 변화와 관련된 어사들—왕, 과부, 원망, 권투, 외국, 죄, 귀, 쉬, 왜국, 헛대, 웬일, 께쩍—의 분포 지역과 변화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그들의 변화와 관련된 음운규칙과 그 규칙의 전원지 및 전개 양상을 밝혀보기로 한다.

1. ‘나’

‘왕’의 ‘나’는, 전국적으로 볼 때, wa, wa:, a의 세 유형으로 실현되는데, 후자의 a는 경남의 남해 한 곳에서만 실현되는 유형이다([dm3039a] 참조). 이로 볼 때, 자음이 선행되지 않는 w는 모음 앞에서 거의 삭제되지 않는 것이 전국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과부’의 ‘나’는, 전국적으로 볼 때, wa, wa:, *a:, a, a:의 다섯 유형으로 실현되는데, 영남지역에서도 이들 네 유형이 모두 실현되나 음장을 무시하면 wa, *a, a의 세 유형이 된다([dm3039b] 참조). 다음에서는 이들 세 유형의 영남지역에서의 분포 지역 및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wa가 실현되는 지역에는 울진(경북), 함천, 창녕, 밀양, 울주, 산청, 하동, 함안(경남) 등이 있는데, 이 wa는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실현되는 유형이나 영남 지역에서는 경북 23개 군 중 1개 군에서, 경남의 19개 군 중 6개 군에서만 실현된다.

*a는 wa의 w가 약화된 것으로, 영남에서 이것이 실현되는 지역은 경북의 칠곡 한 곳이다.

a는 wa>*a>a의 과정을 거쳐 나타난 형태로 전북의 2개 군(정읍, 고창)에서 실현된

경우를 제외하면 전부 영남 지역(영풍, 봉화, 문경, 예천, 안동, 영양, 상주, 의성, 청송, 영덕, 금릉, 선산, 군위, 영일, 성주, 경산, 영천, 고령, 달성, 청도, 월성(경북), 거창, 함양, 의령, 진양, 의창, 김해, 양산, 사천, 고성, 남해, 통영, 거제(경남))에서만 실현된다. 앞의 ‘왕’에서는 1개 군에서만 w가 삭제된 형태로 나타났으나 여기서는 경북의 23개 군 중 21개 군과 경남의 19개 군 중 12개 군에서 w가 삭제된 형태로 실현됨을 볼 때, w의 약화, 삭제는 영남방언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그 삭제는 c—v 환경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ㄱ’

‘원망’의 ‘ㄱ’은, 전국적으로 볼 때, wa, wə:, *a:, a, wɔ, wɔ:, ɔ, ɔ:, wɔ의 9유형으로 실현된다([dm3038a] 참조). 이들 중 영남방언에서는 a, wɔ, wɔ:, ɔ, ɔ:의 5유형이 실현되나 음장을 무시하면 a, wɔ, ɔ의 세 유형이 실현된다. 다음에서는 이들의 분포 지역 및 변화 과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a는 영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실현되는 wa의 w가 약화, 삭제된 것이다. 경남의 함양 한 곳에서 이 유형이 나타나며, 경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북의 정읍, 고창 두 곳에서 나타난다.

wɔ는 wa의 a가 영남방언에서 a>ɔ의 변화를 경험하여 나타난 유형인데(오종갑 1998), 경북의 20개 군(영풍, 봉화, 울진, 문경, 예천, 안동, 상주, 의성, 영덕, 선산, 군위, 영일, 성주, 칠곡, 경산, 영천, 고령, 달성, 청도, 월성)과 경남의 16개 군(거창, 함양, 창녕, 밀양, 울주, 산청, 의령, 하동, 진양, 함안, 의창, 김해, 양산, 사천, 고성, 통영)에서 이 유형이 실현되고 있다. 이 유형은 w의 약화, 삭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은 것이다.

ɔ는 wɔ의 w가 약화, 삭제된 것인데, 경북의 3개 군(영양, 청송, 금릉)과 경남의 2개 군(남해, 거제)에서 나타난다. 앞의 a로 실현된 경우의 3개 군과 이 경우의 5개 군을 합하면 전국에서 wa의 w가 약화, 삭제되는 지역은 8개 군이 되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단 한 개 군에서만 w가 삭제된 앞의 ‘왕’의 경우보다는 실현 지역이 좀더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며, c—v 환경에서 시작된 w삭제 규칙의 적용 환경이 #—v에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권투’의 ‘ㄱ’은, 전국적으로 볼 때, wa, wə:, *a, *a:, a, a:, *ɔ, ɔ, wɔ, *ɔ:, ɔ, ɔ:,

ʷo, o, o:, ɔ, ɔ:의 17유형으로 실현되며, 강원도의 양양에서는 해당 어사가 실현되지 않는다([dm3038b] 참조). 이들 중 영남방언에서는 a, a:, wɔ, ʷɔ:, ɔ, ɔ:, o:의 7유형이 실현되나 음장을 무시하면 a, wɔ, ʷɔ, ɔ, o의 5유형이 실현된다. 다음에서는 그들의 분포 지역 및 변화 과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a는 c—v의 환경에서 w가 삭제된 것인데, 앞의 ‘원망’의 경우와 동일하게 영남에서는 경남의 함양 한 곳에서만 실현되며, 영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부안, 정읍, 고창(전북), 구례, 고흥(전남)의 5개 군에서 실현된다.

wɔ는 a>ɔ 규칙의 적용으로 나타난 유형인데, 이 유형은 앞의 ‘원망’의 경우와는 달리 경남의 6개 군(창녕, 밀양, 울주, 하동, 함안, 고성)에서만 나타난다. 그리고, ʷɔ는 wɔ의 w가 약화된 것인데, 이것은 경북의 3개 군(봉화, 칠곡, 고령)에서 나타나며, ɔ는 wɔ의 약화된 w가 다시 삭제된 것으로 경북의 19개 군(영풍, 울진, 문경, 예천, 안동, 영양, 상주, 의성, 영덕, 금릉, 선산, 군위, 영일, 성주, 경산, 영천, *달성²⁾, 청도, 월성)과 경남의 12개 군(거창, 함천, 산청, 의령, 진양, 의창, 김해, 양산, 사천, 남해, 통영, 거제)에서 실현되고 있어 영남지역에서는 이 유형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므로, 모음 앞에서 w가 삭제되는 규칙은 앞의 ‘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영남방언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o는 wa가 축약된 것인데, 경기도의 9개 군(연천, 김포, 가평, 시흥, 화성, 용인, 이천, 여주, 안성), 강원도의 6개 군(철원, 평창, *명주, 원성, 영월, 정선), 충북의 2개 군(*단양, *옥천), 충남의 4개 군(청양, 연기, *서천, 논산), 전북의 3개 군(익산, 완주, 무주), 전남의 5개 군(신안, 무안, 영암, 진도, 강진)에서 이 유형이 실현된다. 그리고 영남에서는 경북의 2개 군(청송, *달성)에서 o로 실현되는데, 그것도 *달성에서는 ɔ와 병존하고 있어 영남 지역에서는 wa>o의 변화가 아주 미약하다고 하겠다.

3. ‘나’

‘외국’의 ‘나’는, 전국적으로 볼 때, oy, o^y, ö, ö:, ȡ, we, we:, ʷe, e, wi:, i:, we:, wE, we:, E, E:의 15유형으로 실현된다.³⁾([dm3031b] 참조) 이들 중 영남 지역에서는 ö, we,

2) *는 두 개의 방언형이 병존하는 지역임을 의미한다.

3) 파주(경기)에서는 e:mi라는 어사가 조사되어 있어 ‘외국’과는 거리가 있으며, 남제주(제주)에서는 해당 어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e, e, wi, i, wE, wE', E, E', wε:의 11유형으로 실현되나 음장을 무시하면 ö, we, *e, e, wi, i, wE, E, wε의 9유형이 실현된다. 다음에서는 이들의 분포 지역 및 변화 과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ö는, 통시적으로 볼 때, 하향이중모음이었던 oy(*청양, *대덕)가 축약된 것인데(oy>ö), 이것은 영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현되는 유형이다. 영남 지역에서는 경남의 하동, 함안 두 지역에서만 실현된다.

we는, 통시적으로 oy>way>we의 과정을 겪어 발달한 것인데(백두현 1992:111), 영남 지역에서는 안동, *달성(경북), 거창, 함양, 산청(경남) 등지에서 실현된다. *e는 we의 w가 약화된 것으로 의령(경남) 한 지역에서 실현되며, e는 약화된 w가 다시 삭제된 것인데, 경남의 4개 군(합천, 진양, 사천, 고성)에서 그 실현을 볼 수 있다.

wi는 we의 e가 e>i의 변화를 겪은 것인데, 경북의 4개 군(영일, 경산, 고령, *달성)에서 그 실현을 볼 수 있다. i는 wi의 w가 약화, 삭제된 것으로 금릉, 선산(경북)에서만 실현된다.

wE는 we의 e가 영남방언에서 발달한 e>E의 변화를 경험한 것인데(오종갑 1997 참조), 충북, 전북, 전남에서 각각 1개 군씩 이 유형으로 실현되는 지역이 있기는 하나 주로 영남 지역에서 실현된다.(영풍, 봉화, 울진, 영양, 청송, 영덕, 군위, 성주, 칠곡, 영천, 청도, 월성(경북), 창녕, 밀양, 울주, 의창, 거제(경남)) 그리고 E는 wE의 w가 약화, 삭제된 것으로 경북의 3개 군(문경, 예천, 상주)과 경남의 4개 군(김해, 양산, 남해, 통영)에서 실현된다.

wε는 we의 e가 ε로 변화되어 나타난 유형인데, 경북의 의성에서만 실현된다.

‘죄’의 ‘니’는, 전국적으로 볼 때, ö, ö', we', e, e', wi, *i, i, o, wE, *E', E, E', *ε:의 14유형으로 실현된다.⁴⁾([dm3059b] 참조) 이들 중 영남 지역에서는 ö, e, e', wi, *i, i, wE, *E', E, E', *ε:의 11 유형이 실현되는데, 음장을 무시하면, ö, e, wi, *i, i, wE, *E', E, E, wε의 9유형이 된다. 다음에서는 이들의 분포 지역 및 변화 과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ö는 oy가 축약된 것으로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유형이 실현되며, 영남 지역에서는 거창(경남) 한 지역에서만 실현되는데, 이것은 거창이 전북과의 접경지역임을 감안할 때 전북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e는 we의 w가 약화, 삭제된 것으로 경남의 9개 군(합천, 함양, 함안, 산청, 의령, 하동, 진양, 사천, 고성)에서 실현된다. 그런데, 영남 지역에서 we로 실현되는 지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we로 실현되다가 다시 w가 약화,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4) 화천, 홍천(강원), 북제주, 남제주(제주)에서는 어사 자체가 실현되지 않는다.

wi는 we의 e가 영남방언에서 발달한 e>i 변화를 경험한 것인데(오종갑 1997 참조), 창녕(경남) 한 지역에서 실현되고, *i는 w가 약화된 것으로 경북의 3개 군(영덕, 선산, 칠곡)에서 실현되며, i는 약화된 w가 다시 삭제된 것으로 밀양(경남) 한 지역에서 실현된다.

wE는 we의 e가 e>E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울주 한 지역에서 실현되고, 이 wE의 w가 약화된 *E는 경북의 3개 군(영양, 영천, 청도)에서 실현되며, 이 약화된 w가 다시 삭제된 E는 경북의 14개 군(영풍, 봉화, 울진, 문경, 안동, 상주, 청송, 금릉, 군위, 영일, 성주, 경산, 고령, 월성)과 경남의 6개 군(의창, 김해, 양산, 남해, 통영, 거제)에서 실현된다.

자음이 선행되지 않는 ‘외국’의 ‘니’가 wE로 실현되는 지역은 영남 전체에서 17개 군이고, w가 삭제되어 E로 실현되는 지역은 7개 군이었으나, 자음이 선행된 ‘죄’의 ‘니’는 약화된 w를 포함하여 wE로 실현되는 지역이 영남 전체에서 4개 군이고, w가 삭제된 지역은 20개 군에 이른다. 이것은 선행 자음의 유무가 w삭제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ε는 의성(경북) 한 지역에서만 실현되는데, 앞의 ‘외국’의 경우에도 이 지역에서만 wε가 실현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방언형들 중 e, i, E는 각각 we, wi, wE > *e, *i, *E > e, i, E의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유형인데, 이러한 변화 과정을 겪은 지역은 영남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변화는 영남방언의 특징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기’

‘귀’의 ‘기’는, 전국적으로 볼 때, uy, ü, ü:, wi, wi:, *i, i, i:의 여덟 유형으로 실현된다.⁵⁾ ([dm3023a] 참조) 이들 중 영남 지역에서는 wi, *i, i, i:의 네 유형이 실현되나 음장을 무시하면 wi, *i, i의 세 유형만 실현되는데, 이들의 분포 지역 및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영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하향이중모음이었던 uy가 단모음 ü로 축약되어 실현되나, 영남 지역에서는 uy가 ü로 단모음화되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wi로 변했다.⁶⁾ 이 wi는, 통시적으로, uy > wiy > wi의 과정을 겪어 발달한 것인데(백두현 1992:111), 경남의 6개 군(거창, 창녕, 밀양, 울주, 하동, 함안)에서는 현재까지도

5) 북제주, 남제주에서는 어사 자체가 실현되지 않는다.

6) 여기서 전부 wi로 변했다고 한 것은 *i와 i는 wi가 다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다.

*i는 wi의 w가 약화된 것으로, 영풍, 봉화, 울진, *안동, 칠곡(경북) 등지에서 실현된다. 그리고, 앞의 wi와 *i의 분포 지역으로 보면, wi는 주로 경남에서, *i는 주로 경북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경북 지역에서 w의 약화가 보다 빨리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w의 약화가 최고조에 달한 것이 w의 소멸인데, 그것이 소멸되고 i만 남아 실현되는 지역에는 경북의 19개 군(문경, 예천, *안동, 영양, 상주, 의성, 청송, 영덕, 금릉, 선산, 군위, 영일, 성주, 경산, 영천, 고령, 달성, 청도, 월성)과 경남의 13개 군(합천, 함양, 산청, 의령, 진양, 의창, 김해, 양산, 사천, 고성, 남해, 통영, 거제)이 있다.

uy의 발달 순서를 uy>wij>wi>*i>i로 보면, 현대 방언에서 i로 실현되는 지역이 개신 규칙의 전파가 가장 빠른 지역이고, *i로 실현되는 지역이 그 다음이며, wi로 실현되는 지역은 그 전파 속도가 가장 늦은 지역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경북에서는 19개 군에서 i가 실현되고, 나머지 5개 군에서는 *i가 실현되어 wi가 그대로 실현되는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이에 비해, 경남에서는 13개 군에서 i가 실현되고, 나머지 6개 군에서는 wi가 실현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아도, 영남 이외의 지역에서 *i가 실현되는 지역은 한 곳도 없으며, i가 실현되는 지역은 단양, 영동(충북), *홍성(충남) 등이 있으나 그 세력이 아주 미약하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w-약화-삭제규칙은 그 전원지가 경북지역이며, 이것은 경북 방언의 한 특징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된다.

‘쉬’의 ‘기’는, 전국적으로 볼 때, ü, ü:⁷⁾, wi, wi:, *i, *i:, i, i:, ö:, we, e, u, u:, iu의 14유형으로 실현된다.⁸⁾[dm3023b] 참조) 이들 중 영남 지역에서는 ü, wi, *i, *i:, i, i:, we, e의 8유형이 실현되나 음장을 무시하면 ü, wi, *i, i, we, e의 6유형이 실현되는데, 이들의 분포 지역 및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ü는 영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실현되는 유형인데, 영남 지역 중에서는 경북의 울진에서 유일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울진과 접경지역인 강원도(삼척) 방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wi는 경남의 2개 군(밀양, 울주)에서 실현되고, 이 w가 약화된 *i는 경남에서는 1개 군(창녕), 경북에서는 10개 군(영풍, 봉화, 청송, 금릉, 칠곡, 영천, 고령, 달성, 청도, 월성)에서 실현된다. 그리고 w가 약화, 삭제된 i는 영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충북의 1개 군(단양)에서만 실현될⁹⁾ 뿐 나머지는 모두 영남 지역에서만 실현된다. 영남 지역 중에서는 경

7) 송주(전남)에서는 hü가 실현되는데, 이것은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형으로 해석된다.

8) 의창(경남), 북제주, 남제주(제주)에서는 어사 자체가 실현되지 않는다.

북의 12개 군(문경, 예천, 안동, 영양, 상주, 의성, 영덕, 선산, 군위, 영일, 성주, 경산)과, 경남의 13개 군(거창, 함양, 산청, 하동, 진양, 김해, 양산, 사천, 고성, 남해, 합천, 통영, 거제)에서 그것이 실현된다.

그런데, ‘쉬’의 경우에는, 그 본포 지역으로 볼 때, 앞의 ‘귀’의 경우와는 달리, w의 약화, 삭제가 영남방언의 특징이 됨은 두말 할 필요가 없으나, 그 진원지가 경북인지 경남 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쉬’의 ‘기’가 we로 실현되는 지역에는 경남의 함안과 경기도의 고양에 있으며, 이 we에서 w가 약화, 삭제되고 e만 남아 실현되는 지역에는 의령 한 곳이 있는데, 이 ‘기’가 어떻게 we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설명이 간단하지 않다. 다음에서 두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해 보기로 한다.

하나는 영남방언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e > i$ 변화를 이용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즉, 역사적 기저형 uy 가 wi 로 바뀌었으나 다시 $e > i$ 변화에 대한 과도교정으로 오히려 i 가 e 로 바뀌어 we 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곧 타당성이 없음이 드러나는데, 그 이유는 함안과 의령에서는 $e > i$ 규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오종갑 1997 참조)

다른 하나는 앞에서 이미 본 II.3의 ‘니’가 we 로 실현됨에 착안하여 ‘기’가 ‘니’로 변화된 다음 ‘니’의 변화와 동일한 변화 과정($oy > way > we$)을 거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해석을 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현대 방언에서도 ‘쉬’(suy)가 ‘쇠’(soy)로 바뀐 단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예가 전남의 신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신안에서는 ‘쉬’의 ‘기’가 $ö$ 로 실현되는데, 이것은 uy 가 oy 로 변화된 다음 다시 모음축약에 의해 $ö$ 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함안, 고양에서 실현되는 we 도 ‘쉬’의 ‘기’가 일단 ‘니’(oy)로 바뀌는 단계까지는 신안의 경우와 동일했지만 그 이후의 변화에서 한쪽은 단모음화되고, 다른 한쪽은 재음소화되어 way 가 된 다음 다시 ay 가 단모음화되어 we 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의령에서 실현되는 e 는 we 의 w 가 약화, 삭제된 것이다.

5. ‘내’

9) 이 지역이 경북과의 접경 지역임을 고려할 때 경북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왜국’의 ‘내’는, 전국적으로 볼 때, $w\epsilon$, $w\epsilon'$, ϵ , wE , wE , E , we , e , δ 의 9유형이 실현된다.¹⁰⁾ ([dm3037a] 참조) 이들 중 영남 지역에서는 $w\epsilon$, wE , E , we , e 의 5유형이 실현되는데, 이들의 분포 지역 및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w\epsilon$ 는 역사적 지저형 way의 ay가 단모음화함으로써 나타난 형태인데, 경기도의 9개 군(연천, 파주, 김포, 고양, 양주, 가평, 화성, 여주, 평택), 강원도의 14개 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성, 양양, 횡성, 평창, 명주, 원성, 영월, 정선, 삼척), 충북의 7개 군(진천, 증원, 제원,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충남의 13개 군(서산, 당진, 아산, 천원, 홍성, 공주, 연기, 보령, 부여, 서천, 논산, 대덕, 금산)에서 실현되어 주로 중부 지방에서 실현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영남지방에서는 경북의 울진과 의성에서 이 형태가 실현되는데, 강원도와 접경지역인 울진의 경우는 강원도방언의 영향으로 해석되나 의성은 그렇지 않은 데도 그것이 실현된 것은 예외적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wE 는 경기도의 7개 군(강화, 남양주, 시흥, 광주, 양평, 용인, 안성), 충북의 3개 군(음성, 단양, 괴산), 충남의 1개 군(청양), 전북의 10개 군(옥구, 익산, 진안, 무주, 김제, 부안, 임실, 장수, 순창, 남원), 전남의 17개 군(장성, 담양, 곡성, 구례, 광산, 신안, 나주, 승주, 광양, 영암, 해남,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여천, 완도)에서 실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영남 방언에서 발생한 $\epsilon > E$ 규칙이(오종갑 1997 참조) 이들 지역에까지 전파되어 $w\epsilon$ 가 wE 로 바뀐 것이다. 영남지역에서 wE 가 실현되는 지역에는 경북의 2개 군(영풍, 봉화)과 경남의 5개 군(합천, 창녕, 울주, 함안, 거제)이 있다.

wE 는 wE 의 w 가 약화된 형태인데, 전북의 1개 군(정읍)과 전남의 1개 군(영광)에서만 실현될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귀중한 자료로 wE 의 w 가 바로 삭제되어 E 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단계인 약화의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E 는 약화된 w 가 다시 삭제된 것으로 전북의 2개 군(완주, 고창), 경북의 19개 군(문경, 예천, 안동, 영양, 상주, 청송, 영덕, 금릉, 선산, 군위, 영일, 성주, 칠곡, 경산, 영천, 고령, 달성, 청도, 월성), 경남의 12개 군(밀양, 함양, 산청, 하동, 진양, 의창, 김해, 양산, 사천, 고성, 남해, 통영)에서 실현되는데, 이 분포로 볼 때, 경북 지역에서 그 세력이 가장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wE 의 w 가 약화되어 wE 가 되고, 이것이 다시 삭제되어 E 가 된 것이 사실이라면($wE > {}^wE > E$), 현대방언에서 E 로 실현되는 지역이 가장 빨리 변화를 경험한 지역이고, we 로 실현되는 지역이 그 다음으로 변화를 경험한 지역이며, wE 로 실현되는 지역이 가

10) 북제주, 남제주에서는 어사 자체가 실현되지 않는다.

장 변화의 속도가 느린 지역임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wE가 실현되는 지역에는 $\epsilon > E$ 개신파는 도달되었으나 w약화, 삭제의 개신파는 아직 도달되지 않았고, wE 가 실현되는 지역에는 w약화의 개신파는 도달되었으나 w삭제의 개신파는 아직 도달되지 않았으며, E가 실현되는 지역은 w약화, 삭제 개신파의 진원지가 됨을 의미한다.

${}^w\epsilon$ 와 ϵ 는 각각 경남의 의령과 거창에서 실현되는데, 전자는 wE의 ϵ 가 상승하여 ϵ 로 바뀐 다음 다시 w가 약화된 것이며, 후자는 약화된 w가 다시 삭제된 것이다. 그러나, 이 세력은 아주 미미하다.

‘햇대’의 ‘내’는, 전국적으로 볼 때, wE, wE:, ${}^w\epsilon$, ϵ , ϵ :, wE, wE:, wE , E, we:, e, ${}^w i$, δ 의 13유형이 나타난다.¹¹⁾([dm3037b] 참조) 이들 중 영남방언에서는 ${}^w\epsilon$, wE, wE , E, e, ${}^w i$ 의 6유형이 실현되는데, 이들의 분포 지역 및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w\epsilon$ 는 영남지역에서는 경북의 울진 한 군에서만 실현되는데, 이것은 앞의 ‘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원도방언의 영향으로 wE로 실현되던 것이 w의 약화를 경험한 것으로 해석된다.

wE는 음장을 무시하면, 경기도의 5개 군(광주, 안성, 시흥, 양평, 용인), 충북의 4개 군(증원, 제원, 단양, 괴산), 충남의 1개 군(청양), 전북의 8개 군(익산, 진안, 무주, 부안, 정읍, 장수, 순창, 남원), 전남의 15개 군(장성, 담양, 곡성, 구례, 광산, 신안, 무안, 나주, 승주, 광양, 영암, 해남, 강진, 장흥, 고흥)에서 실현되는데, 영남지역에서는 경남의 3개 군(거창, 창녕, 울주)에서만 그 실현을 볼 수 있다.

wE 는 wE의 w가 약화된 형태인데, 전북의 2개 군(*완주, 김제), 전남의 2개 군(영광, 함평), 경북의 10개 군(봉화, 의성, 청송, 영덕, 선산, 성주, 칠곡, 영천, 고령, 월성)에서 실현된다. 앞의 ‘왜국’의 경우에는 영남지역에서 약화된 w가 실현된 지역은 한 곳도 없었으나 ‘햇대’의 경우에는 경북의 10개 군에서 실현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E는 약화된 w가 다시 삭제된 것으로 전북의 2개 군(임실, 고창), 경북의 11개 군(영풍, 문경, 예천, 안동, 상주, 금릉, 군위, 영일, 경산, 달성, 청도), 경남의 13개 군(합천, 밀양, 함양, 산청, 의령, 진양, 의창, 김해, 양산, 사천, 고성, 통영, 거제)에서 실현된다. 이 경우에도 ‘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전북의 경우는 2개 군으로 동일하나 경북의 경우에는 8개 군에서, 경남의 경우에는 1개 군에서 더 적게 실현됨을 알 수 있다. 경북의 경우 8개

11) 양구(강원)에서는 $\epsilon^h\epsilon a\eta$ 으로 실현되며, 하동, 남해(경남), 북제주, 남제주(제주)에서는 해당 어사가 실현되지 않는다.

군이나 적게 실현되는 것은 아직 w가 삭제되지 않고 약화된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 본 ‘왕 : 과부’, ‘원망 : 권투’, ‘외국 : 죄’ 등의 경우에는, 자음이 선행되는 경우가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 경우보다 w삭제의 지역적 분포가 광범위하였다. 그러나, ‘내’의 경우에는 자음이 선행되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 선행되는 경우보다 그 지역적 분포가 광범위하다. 그 이유는 역사상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사 ‘왜국’의 사용 빈도가 많아 w-약화, 삭제규칙이 이 어사에 보다 일찍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e는 경남의 함안에서 고립적으로 실현되고, ^Wi 역시 경북의 영양에서 고립적으로 실현되는데, 전자는 we의 w가 삭제된 형태이며, 후자는 we가 w의 약화로 ^We가 된 다음 다시 e>i규칙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인다.

6. ‘네’

‘웨일’의 ‘네’는, 전국적으로 볼 때, we, we:, we:, ^We, wE, wE:, ^WE, wi, wi:, e, e:, u:, ue, ö의 14유형이 실현된다.¹²⁾([dm3036a] 참조) 이들 중 영남지역에서는 we, we:, wE, wE:, ^WE, wi, e, u:, ue의 9유형이 실현되나 음장을 무시하면 we, e, wE, ^WE, wi, ue, u의 7유형이 실현된다. 다음에서는 이들의 분포 양상 및 변화 과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we는 역사적 기저형 way의 ay가 단모음화함으로써 나타난 유형인데, 경기도의 15개 군(연천, 강화, 김포, 남양주, 양주, 가평, 용진, 시흥, 평주, 양평, 화성, 용인, 이천, 여주, 안성), 강원도의 12개 군(철원, 화천, 인제, 고성, 춘성, 양양, 횡성, 평창, 명주, 원성, 정선, 삼척), 충남북의 전역, 전북의 12개 군¹³⁾(옥구, 익산, 완주, 진안, 무주, 김제, 부안, 임실, 장수, 고창, 순창, 남원), 전남의 1개 군(구례)에서 실현된다. 영남의 경우에는 경북의 1개 군(안동), 경남의 9개 군(거창, 합천, 함양, 산청, 의령, 하동, 진양, 함안, 사천)에서 실현되는데, 경남의 상당수 지역에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경기, 강원, 충남북, 전북 등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실현되는 we의 세력이 전북과의 접경지대를 통해 경남의 서부 지역

12) 신안(전남)에서는 m^Wə:nnɪl이, 달성(경북)에서는 uyan이 조사되어 있으며, ‘완도’에서는 wEnnyil과 əɕ’annyil이, ‘강진’에서는 wEnnyil과 uɕ’annyil이 병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그리고 양구, 홍천(강원), 북제주, 남제주(제주)에서는 해당 어사가 실현되지 않는다.

13) 정읍에서는 e로 실현되는데, 이것은 we>e의 과정을 거친 것이므로 이것까지 감안하면 전북 전역이 된다.

에까지 전파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we의 w가 약화, 삭제된 e는 전북의 정읍과 경남의 고성에서 실현된다.

wE는 we의 e가 e>E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전남의 18개 군(영광, 장성, 담양, 곡성, 함평, 광산, 무안, 나주, 송주, 영암, 진도, 해남,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여천, *완도), 경북의 11개 군(영풍, 봉화, 울진, 문경, 영양, 상주, 의성, 청송, 선산, 성주, 칠곡), 경남의 8개 군(창녕, 밀양, 울주, 김해, 양산, 남해, 통영, 거제)에서 실현된다. 그리고, wE의 w가 약화된 *E는 경남의 의창에서만 실현되며, 이 약화된 w가 삭제된 E는 전국의 어디에서도 실현되지 않는데, 이것은 w-약화, 삭제규칙이 이 어사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wi는 경북의 9개 군(*영일, 예천, 영덕, 군위, 경산, 영천, 고령, 청도, 월성)에서만 실현되는데, 이것은 경북을 진원지로 하는 <ɐ> 규칙이 we의 e에 작용하여 i로 바뀐 것이다.

ue는 경북의 *안동에서 we와 병존하는데, 이로 볼 때, we의 w가 비활음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u는 경북의 금릉에서 실현되는데, 언뜻 보기에는 ue의 e가 삭제되고 그 보상 작용으로 장음이 실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역사적 기저형 way가 모음상승에 의해 wiy로 바뀌고, 이것이 다시 uy로 바뀐(꺾꺾)의 uy형 참조) 다음 y가 삭제된 것이다.

‘괘작’의 ‘괘’는 we, wɛ, ^we, ^wɛ, e, we, wɛ; ^we; ɛ; wE, ^wE, E, wE; E; wi, wi; ^wi; i; ue, uyə, uy, ü, ü; yE, yo; ö, ö; üE의 28유형이 실현된다.([dm3036b] 참조) 이들 중 영남지역에서는 we, ^we, e, we; wE, E, E; wi, wi; ^wi; i; ö의 12유형이 실현되는데, 음장을 무시하면 we, ^we, e, wE, E, wi, ^wi, i, ö의 9유형이 실현된다. 다음에서는 이들의 분포 지역 및 변화 과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we는 경기도의 11개 군(연천, 파주, 김포, 고양, 남양주, 용진, 시흥, 광주, 양평, 용인, 여주), 강원도의 9개 군(철원, 화천, 양구, *고성, 춘성, 홍천, 양양, 명주, 정선), 충북의 6개 군(진천, 음성, 증원, 제원, 청원, 괴산), 충남의 12개 군(서산, 당진, 천원, 예산, 홍성, 청양, 공주, *부여, 서천, 논산, 대덕, 금산), 전북의 8개 군(완주, 진안, 무주, 김제, 임실, 장수, 고창, 남원), 전남의 1개 군(구례), 경북의 1개 군(울진), 경남의 3개 군(거창, 산청, 함안), 제주도 전역에서 실현된다. 경북의 울진에서 실현된 것은 강원도와의 접경지역으로 강원도방언의 영향으로 보이며, 경남의 경우는 앞의 ‘웨일’의 경우를 고려할 때, 전북 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w가 약화된 we는 양주, 사천의 두 지역에서만 실현

되며, 약화된 w가 삭제된 e는 경남의 4개 군(함양, 의령, 진양, 고성)에서만 실현된다.

wE는 주로 전남(영광, 신안, 나주, 승주, 강진, 장흥, 보성)에서 실현되고, 영남 지역에서는 경남의 울주 한 곳에서 실현될 뿐이다. 그런데, E의 경우는 경북의 3개 군(영천, 고령, 월성), 경남의 6개 군(의창, 김해, 양산, 남해, 통영, 거제)에서 실현되어 영남지역에 치우쳐 있다. 이것은 이들 지역에서는 보다 일찍 wE의 w가 약화, 삭제되었음을 의미한다.

wi는 we의 e가 i로 변화된 유형인데, 강원도의 3개 군(인제, *고성, 횡성), 경북의 1개 군(의성), 경남의 3개 군(합천, 창녕, 밀양)에서 실현된다. 그런데, w가 약화되어 *i로 실현되는 지역이 경북(봉화, 안동, 상주, 청송, 칠곡, 청도)에 치우쳐 있고, 이 약화된 w가 삭제되어 i로 실현되는 지역도 충북의 단양을 제외하고는 전부 경북(영풍, 문경, 예천, 영양, 영덕, 금릉, 선산, 군위, 영일, 성주, 경산, 달성)에 치우쳐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we가 wi로 실현된 것은 경북방언의 특징이며, 경남의 3개 군에서 wi가 실현된 것은 경북과의 점접지역임을 감안할 때 경북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강원도의 인제와 고성에서 wi가 실현된 것은 해로를 통한 e>i 규칙의 전파로 보이며, 횡성은 충북의 단양과 영월('월일'의 '계'가 wi로 실현됨)을 통한 육로로의 전파로 보인다.

ö는 경기도의 포천, 화성, 강원도의 평창, 원성, 영월, 삼척, 충북의 보은, 옥천, 영동, 전북의 부안, 화순, 하동 등등 전국에 산재하는데, 이것은 역사적 가저형 way의 wa가 o로 축약되어 oy가 된 다음 다시 단모음화된 것이다.

III. 방언 분화 양상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 본 12개 어사에 적용된 음운규칙들의 적용 빈도수를 바탕으로 영남방언의 구획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앞에서 검토된 여러 규칙들 중 영남 지역이 그 진원지가 된 규칙으로는 e>i, e>E, e>E, a>ɔ, w-약화, w-삭제 등의 규칙이 있었다. 이들 중 e>i, e>E, e>E, a>ɔ의 경우는 이미 오종갑(1997 및 1998)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w-약화규칙과 w-삭제규칙만을 고려하여 영남방언의 하위 방언권을 구획해 보기로 한다.

먼저 <부록>의 방언지도에 의거하여, 이 두 규칙이 각 어사들에 어느 정도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 어휘수를 w-유지(wE(:), wa(:), we(:), weɾ(:), wi(:), wə(:), wɛ(:), wɔ

(:), w-약화(^wE(:), ^wa:, ^we(:), ^wε, ^wi(:), ^wo, ^wə(:), ^wε(:), ^wɜ, ^wɔ(:), w-삭제(E(:), a(:), e(:), ε:, e:, i(:), ə(:), ε(:), ɜ, ɔ(:)), 기타의 넷으로 구분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¹⁴⁾

군명	w유지	w약화	w삭제	기타	군명	w유지	w약화	w삭제	기타
영풍	5	2	5		청도	4	3	5	
봉화	5	5	2		월성	4	2	6	
울진	7	2	2	1	거창	7		4	1
문경	3		9		합천	6		6	
예천	3		9		창녕	11	1		
안동	3.5	1.5	6.5	0.5	밀양	9		3	
영양	3	2	7		울주	12			
상주	3	1	8		함양	3		9	
의성	6	2	4		산청	6		6	
청송	3	3	5	1	의령	3	2	7	
영덕	4	2	6		하동	6		3	3
금릉	1	1	9	1	진양	3		9	
선산	3	2	7		함안	9		2	1
군위	4		8		의창	3	1	7	1
영월	3.5		8	0.5	김해	3		9	
성주	4	1	7		양산	3		9	
칠곡	4	7	1		사천	3	1	8	
경산	4		8		고성	3		9	
영천	4	3	5		남해	1		10	1
고령	4	3	5		통영	3		9	
달성	3	1	6.5	1.5	거제	4		8	

14) 영남 이외 지역에서의 실현 어휘수는 다음과 같다.

지역	w약화	w삭제	지역	w약화	w삭제	지역	w약화	w삭제
파주		1	중원	1		임실	1	1
포천	2		단양	1	3	고창		5
김포		1	옥천	0.5		영광	5	
고양	2	1	영동	1	2	장성	1	
양주	1		홍성		0.5	구례		1
가평	2		보령	2		함평	4	
용진		2	옥구		1	승주	1	
평택	1	1	완주	0.5	1	고흥		1
안성		1	김제	1		여천		1
양양		0.5	부안		1			
정선		1	정읍	1	4			

위의 표에서 w-약화규칙과 관련된 것은 w-약화 및 w-삭제의 두 경우로서, 전자는 w-약화규칙이 바로 적용된 것이고, 후자는 w-약화규칙이 적용된 다음 다시 w-삭제규칙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므로 각 군별로 w-약화규칙이 적용된 어사의 수는 이 두 경우를 합친 것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그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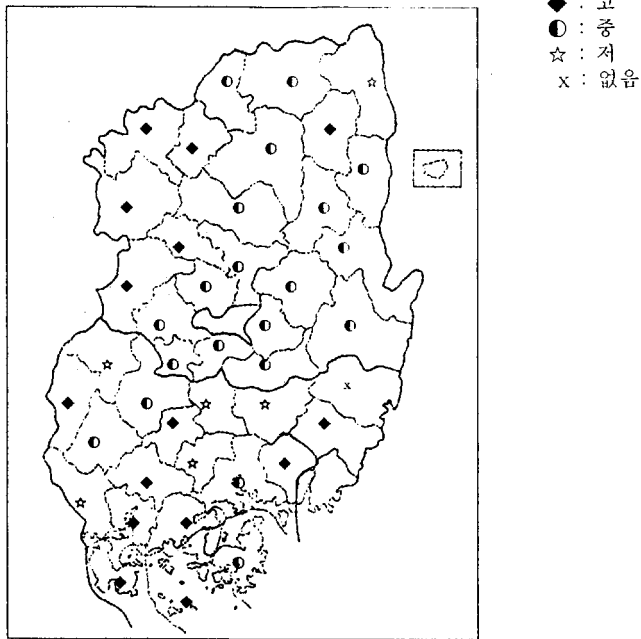
울주(경남)에서는 이 규칙이 적용된 어사가 한 개도 없으며, 창녕(경남)에서는 1개, 함안(경남)에서는 2개, 밀양, 하동(경남)에서는 3개, 울진(경북), 거창(경남)에서는 4개, 의성(경북), 함천, 산청(경남)에서는 6개, 영풍, 봉화(경북)에서는 7개, 달성(경북)에서는 7.5개, 안동, 청송, 영덕, 군위, 영일, 성주, 칠곡, 영천, 고령, 청도, 월성(경북), 의창, 거제(경남)에서는 8개, 문경, 예천, 영양, 상주, 선산(경북), 함양, 의령, 진양, 김해, 양산, 사천, 고성, 통영(경남)에서는 9개, 금릉(경북), 남해(경남)에서는 10개로 나타난다.

이 통계 수치로 볼 때, 경남 지역에서는 w-약화규칙이 한 개의 어사에도 적용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10개나 되는 어사에 적용된 지역도 있어 지역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경북 지역에서는 울진에서 4개의 어사에 이 규칙이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전 지역에서 절반 이상의 어사에 그것이 적용되고 있어 그 세력이 상당히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북 지역에서 이 규칙의 세력이 가장 강한 지역은 금릉으로서 경북의 서남단이고, 경남에서 그 세력이 가장 강한 지역은 남해로서 역시 경남의 서남단이므로 두 지역 중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한 w-약화규칙의 개신파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갔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북 지역에서는 서부 지역이 개신의 중심지(핵심 지역은 금릉)로서 그 개신파가 중부와 동부 지역으로 전파되어 갔으며, 경남에서는 서남의 해안 도서 지역이 개신의 중심지(핵심 지역은 남해)로서 그 개신파가 남부 해안 지역과 중부의 서쪽 지역으로 강한 세력을 지니고 전파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위의 표에 나타난 w-약화규칙의 적용 어사수를 3단계로 나누어 12개의 어사 중 4개 이하인 지역은 그 적용 정도가 낮은 지역으로, 5개 이상 8개 이하인 지역은 보통의 지역으로, 9개 이상인 지역은 높은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도 1] w-약화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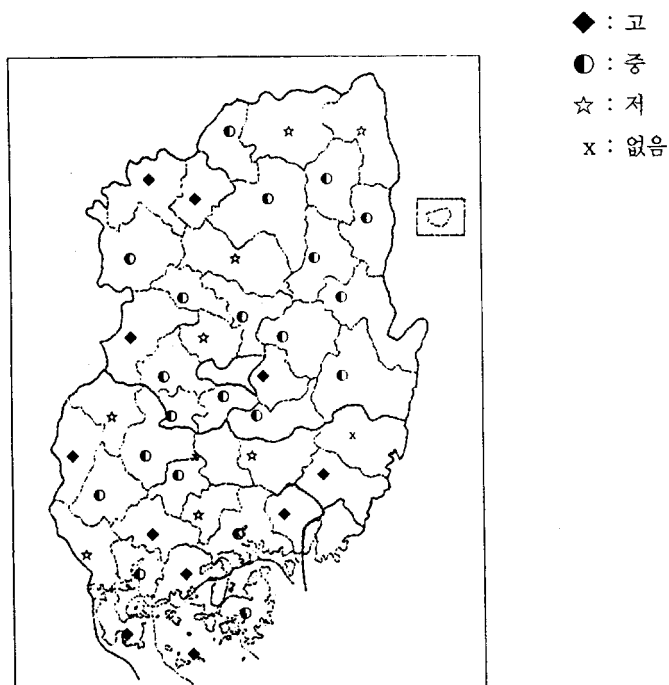


w-삭제규칙이 적용된 어사의 수를 앞의 표에서 보면, 경산, 창녕, 울주에서는 0개, 칠곡에서는 1개, 봉화, 울진, 함안에서는 2개, 밀양, 하동에서는 3개, 의성, 거창에서는 4개, 영풍, 청송, 영천, 고령, 청도에서는 5개, 영덕, 월성, 함천, 산청에서는 6개, 안동, 달성에서는 6.5개, 영양, 선산, 성주, 의령, 의창에서는 7개, 상주, 군위, 영일, 경산, 사천, 거제에서는 8개, 문경, 예천, 금릉, 함양, 진양, 김해, 양산, 고성, 통영에서는 9개, 남해에서는 10개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경우의 빈도수와 앞의 w-약화규칙의 적용 빈도수를 고, 중, 저의 3단계로 나누어 대비해 보면, 봉화에서는 7개의 약화에 2개의 삭제, 영양, 선산, 의령에서는 9개의 약화에 7개의 삭제, 상주, 사천에서는 9개에 8개, 의성에서는 6개에 4개, 칠곡에서는 8개에 1개, 창녕에서는 1개에 0개의 삭제를 보이고, 여타의 경우는 고, 중, 저의 정도가 평행한다. 이러한 사실은 w-약화와 w-삭제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w-약화규칙의 적용 정도가 높은 지역에서 w-삭제규칙의 적용 정도도 높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w-삭제규칙의 진원지도, 앞의 w-약화규칙의 경우와 동일하게, 경북의 경우는 서부 지역으로, 경남의 경우는 서남부 해안 도서 지역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 2] w-삭제의 정도



다음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w-약화규칙과 w-삭제규칙의 전개 양상을 종합하여 영남지역의 방언구획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방언구획의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2분법의 방식을 취하여¹⁵⁾ w-약화규칙과 w-삭제규칙이 모두 전파되지 않은 지역, w-약화규칙만 전파된 지역, w-삭제규칙만 전파된 지역, 그리고 두 규칙 모

두 전파된 지역의 넷으로 구획하면 다음과 같다.

- 두 규칙이 모두 전파되지 않은 지역 : 울주
- w-약화규칙만 전파된 지역 : 창녕
- w-삭제규칙만 전파된 지역 : 없음
- 두 규칙 모두 전파된 지역 : 울주, 창녕을 제외한 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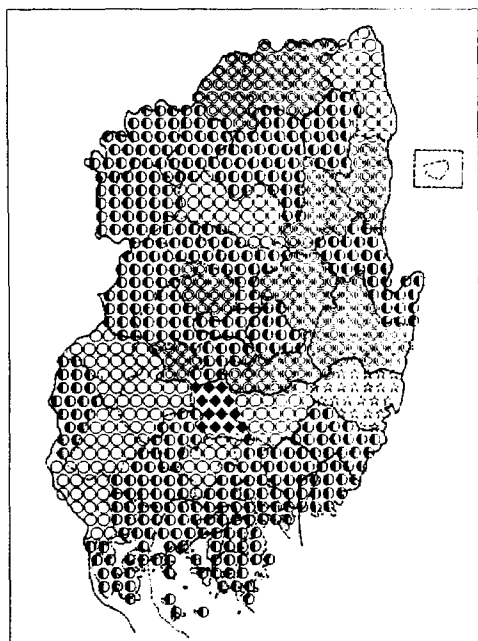
두 규칙이 모두 전파된 지역은 그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여 방언구획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을 다시 2분법(규칙의 적용을 받은 어사가 전체 어사의 절반 이상이나 절반 이하이냐의 여부)으로 하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두 규칙 모두 절반 이하에 적용된 지역: 울진, 의성, 거창, 함천, 창녕, 밀양, 울주, 산청, 하동, 함안
- w-약화규칙만 절반 이상에 적용된 지역: 영풍, 봉화, 청송, 영덕, 칠곡, 영천, 고령, 청도, 월성,
- w-삭제규칙만 절반 이상에 적용된 지역: 없음
- 두 규칙 모두 절반 이상에 적용된 지역 : 문경, 예천, 안동, 영양, 상주, 금릉, 선산, 군위, 영일, 성주, 경산, 달성, 함양, 의령, 진양, 의창, 김해, 양산, 사천, 고성, 남해, 통영, 거제

위에서 얻어진 결론을 지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2분법을 취하는 이유는 한 지역에 어떤 음운규칙이 전파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가 그 규칙의 적용 정도보다, 방언학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도 3] 방언구획



- ☆ : 두 규칙 모두 비전파
- ◆ : w-약화규칙만 전파
- : 두 규칙 모두 전파
- : 두 규칙 모두 절반 이하 적용
- : w-약화규칙만 절반 이상 적용
- ◎ : 두 규칙 모두 절반 이상 적용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방언자료집》의 「음운편」에 수록된 '왕, 파부, 원망, 권투, 외국, 죄, 귀, 쉬, 왜국, 햇대, 웬일, 재깍' 등 12개 어사의 방언형을 이용하여 전국언어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w계 이중모음의 변화와 관련된 영남방언의 특성과 그 전개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w계 이중모음의 변화에 관여하는 음운규칙으로서 영남 지역에 그 진원지를 둔 규칙에는 $\varepsilon > E$, $e > E$, $e > i$, $\alpha > \gamma$ (이상 넷은 오종갑: 1997 및 1998 참조), w-약화, w-삭제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영남방언의 특징으로 지적된다.

(2) w-약화규칙과 w-삭제규칙은 둘 다 동일한 지역을 그 진원지로 하는데, 경북의

경우에는 서부 지역(핵심 지역: 금릉)이, 경남의 경우에는 서남 해안 도서 지역(핵심 지역: 남해)이 그 진원지가 된다. 그리고, 그 개신파는 경북의 경우에는 중부를 거쳐 동부 지역으로, 경남의 경우에는 남부 해안 지역과 중부의 서쪽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3) w-약화규칙 및 w-삭제규칙 전파 여부를 중심으로 영남방언의 하위방언권을 구획하면, ① 두 규칙이 모두 전파되지 않은 지역(경남의 울주), ② w-약화규칙만 전파된 지역(경남의 창녕), ③ 두 규칙이 모두 전파된 지역(울주, 창녕을 제외한 전지역)의 셋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③의 경우를 다시 하위 구분하면, 두 규칙이 모두 절반 이하의 어사에 적용된 지역(울진, 의성, 거창, 함천, 창녕, 밀양, 울주, 산청, 하동, 함안), w-약화규칙만 절반 이상의 어사에 적용된 지역(영풍, 봉화, 청송, 영덕, 칠곡, 영천, 고령, 청도, 월성), 두 규칙 모두 절반 이상의 어사에 적용된 지역(문경, 예천, 안동, 영양, 상주, 금릉, 선산, 군위, 영일, 성주, 경산, 달성, 함양, 의령, 진양, 의창, 김해, 양산, 사천, 고성, 남해, 통영, 거제)의 셋으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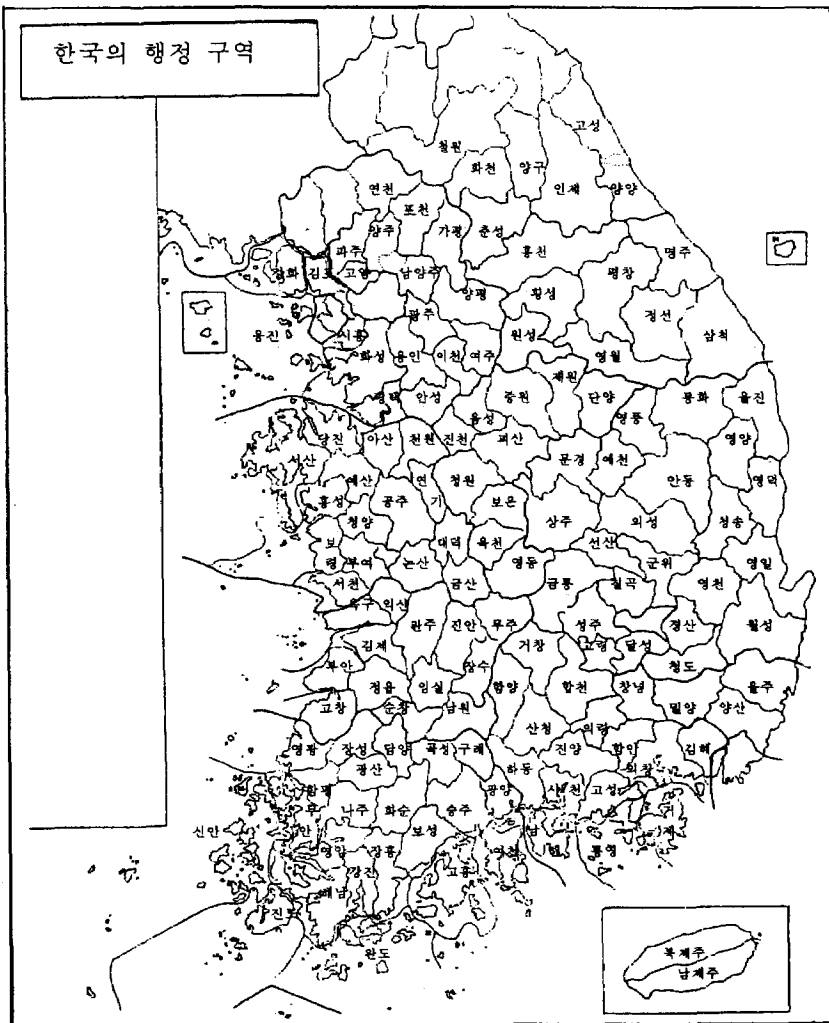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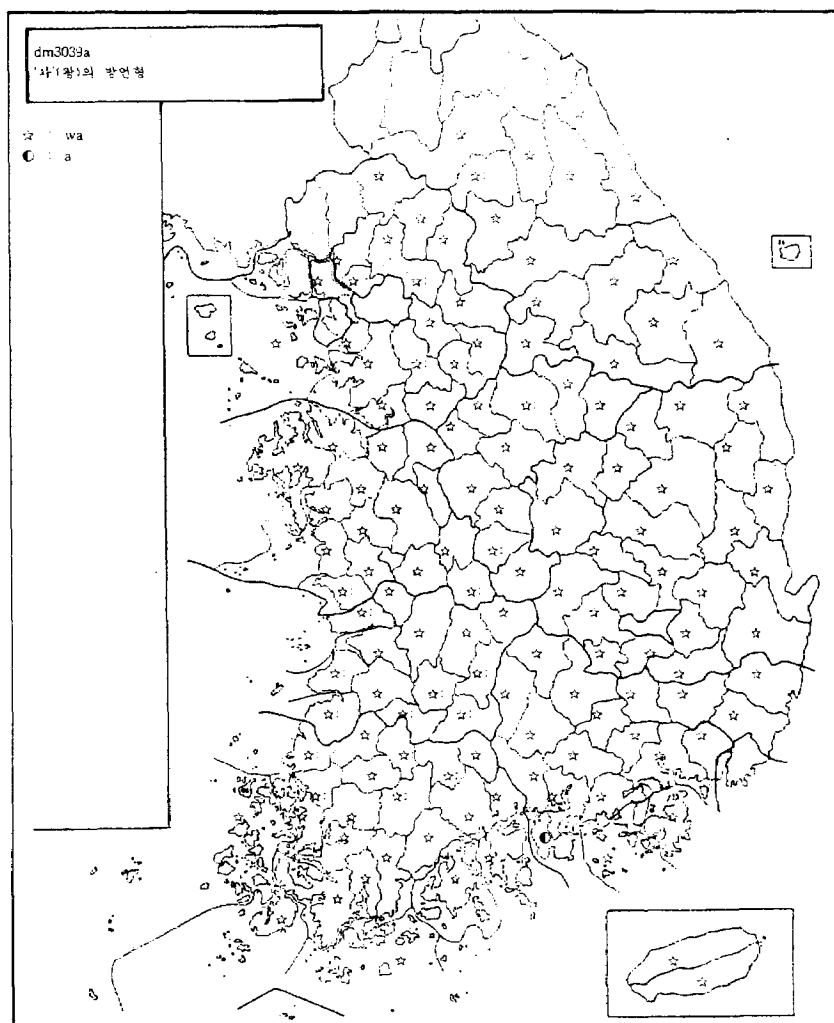
- 곽창석(1986), “진주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경남대).
 곽충구(1982), “아산지역어의 이중모음 변화와 이중모음화,” 《방언》 6.
 권재선(1981), “청도방언의 모음체계 변천의 연구,” 《한국언어문학논집》(대구대) 1.
 김덕호(1997), “경북방언의 지리언어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경북대).
 김영송(1973), “김해방언의 음운,” 《김해지구 종합 학술조사 보고》(부산대).
 김영송(1974), “경남방언,” 《국어방언학》, 형설출판사.
 김재문(1977), “서부경남방언의 음운 연구,” 《진주교대 논문집》 15.
 김택구(1991), “경상남도방언의 지리적 분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건국대).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 출판부.
 김형주(1983), “남해방언의 음운 연구,” 《석당나총》(동아대) 7.
 류영남(1982), “남해도 방언의 음운 연구,” 석사학위논문(부산대).
 문곤섭(1980), “창녕방언의 모음체계 연구,” 석사학위논문(경남대).
 민원식(1982), “문경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충북대).

- 박명순(1982), “경남 거창 방언 연구,” 《논문집》(청주사대) 11.
- 박정수(1993), “변동규칙에 의한 경남방언의 분화 연구,” 박사학위 논문(동아대).
- 박지홍(1975), “양산방언의 음운,” 《어문학》(한국어문학회) 33.
- 박창원(1983), “고성지역어의 모음사에 대하여,” 《국어연구》 54.
- 배병인(1983), “산청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고려대).
- 백두현(1982), “금릉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경북대).
- 백두현(1985), “상주 화북지역어의 음운론적 특징,” 《소당천시권박사 환갑기념 국어학논총》.
- 백두현(1992), 《영남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 서보월(1984), “안동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안동문화》(안동대) 5.
- 성인출(1984), “창녕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계명대).
- 신승원(1996), “경북 의성지역어의 음운론적 분화 연구,” 박사학위 논문(영남대).
- 오종갑(1997), “‘ㄱ, ㄴ’의 변화와 관련된 영남방언의 특성과 그 전개,” 《청암 김영태 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 오종갑(1998), “‘ㄱ, ㄴ’의 변화와 관련된 영남방언의 특성과 그 전개,” (미발표).
- 유구상(1975), “남해도 방언의 일반적 고찰,” 《어문논집》(고려대) 16.
- 이광호(1978), “경남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 《국어학》(국어학회) 6집.
- 이동화(1984a), “고령지역어의 모음순행동화,” 《영남어문학》(영남어문학회) 11집.
- 이동화(1984b), “안동지역어의 음운동화와 삭제,” 석사학위논문(영남대).
- 이시진(1986), “문경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영남대).
- 이영길(1976), “서부 경남방언 연구,” 석사학위논문(동아대).
- 정연찬(1968), “경남방언의 모음체계,” 《국문학논집》(단국대) 2집.
- 정영주(1985), “경상남도 진양군 정촌면의 세대차에 의한 방언의 음운현상,” 《금천문화》(대한신학대).
- 정영주(1987), “경상남도 창녕지역 방언의 세대차에 의한 음운현상,” 《부암 김승곤 박사 회갑기념논총》.
- 전광현(1979), “경남 함양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동양학》(단국대) 9.
- 정정덕(1982), “경남방언의 음운현상,” 《마산대 논문집》 4.
- 정 철(1991), 《경북 중부 지역어 연구》, 경북대 출판부.
- 조신애(1985), “안동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계명대).

- 최명옥(1980), 《경북 동해안 방언 연구》, 민족문화논총(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 최명옥(1994), “경상북도의 방언구획 시론,” 《우리말 연구》, 우골탑.
- 최임식(1994), “웅천지역어의 음운현상,” 《국어방언의 음운사적 연구》, 문창사.
- 최중호(1984), “고성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경남대).
- 최학근(1990), 《증보 한국방언사전》, 명문당.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1995), 《한국방언자료집》(Ⅰ ~ Ⅸ).

〈부 록〉





• 부호 옆의 :는 해당 모음의 방언형을, ☆, ●는 표준위치 방언형을, a는 원순성의 약호를 나타낸다. 이와 동일.

